

# 내신 자신 없다면... 교과 일부·미반영 공략 '합격 가능성 UP'

**가천대** 우수한 4개학기 교과 반영  
**동국대** 상위 10과목 교과성적 반영  
**덕성여대·명지대·서울여대**  
 상위 일부과목 반영방법 유지  
**건대·연대·항공대·덕성여대·성대**  
 논술 100% 반영해 신입생 선발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일부 교과만 반영하거나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공략하면 내신이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내신 성적 중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일부 대학 교과전형이나, 내신 영향력이 적은 논술 전형 지원이 내신의 불리함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전략책으로 꼽힌다.

## ◆일부 대학, 교과전형에서 일부 교과만 반영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 중에서도 특히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 대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만 반영해 성적을 산출한다. 주요 교과 전 과목 성적이 골고루 우수하지는 않은 학생,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학들이다.

〈2023학년도 교과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수도권 일부)〉

대학	전형명	전형방법	교과 반영 방법	수능최저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교과100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우수한 4개 학기 반영 (우수 학기 순 40 : 30 : 20 : 10)	O
	지역균형	1단계: 교과100 2단계: 교과 50, 면접50	국, 영, 수, 사/과 중 상위3개 교과와 각 상위 4개 과목 반영	X (의예/한의예/약학은 적용)
덕성여대	학생부100%	교과100	인문: 국, 영, 수, 사, 한국사 자연: 국, 영, 수, 과, 한국사 석차등급 상위 10과목 반영	O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교과70, 서류종합평가30	인문: 국, 영, 수, 사, 한국사 자연: 국, 영, 수, 과, 한국사 석차등급 상위 10과목 반영	X
	학교장추천	교과100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교과별 상위 4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상위 2과목 추가 반영)	X
명지대	교과면접	1단계: 교과100 2단계: 교과 70, 면접30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교과별 상위 4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상위 2과목 추가 반영)	X
	교과우수자	교과100	국, 영, 수, 사/과 교과별 상위 3과목 반영	O

\*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 확인(2022.05.03)

가천대는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해 우수한 4개 학기만 반영한다. 4개 학기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기 순으로 '40대 30대 20대 10'의 비율로 반영해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동국대는 교과전형에 서류종합평가를 반영한다. 전년도 40%였던 서류 평가 비율을 30% 낮추면서 교과 반영비율이 60%에서 70%로 증가하긴 했지만, 교과성적을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

또한 석차등급 1등급과 2등급의 반영 점수 차가 0.01점이고 1등급과 3등급 간에도 0.05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교과 성적보다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큰 셈이다.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여대는 전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에도 교과별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방법을 유지했다.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와 각 상위 4개 과목씩 총 12과목을, 서울여대는 4개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반영한다. 명지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교과별 상위 4과목씩 총 16과목을 반영하되, 올해는 반영교과 내 진로 선택과목 상위성취도 2과목을 추가해 반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일부 과목만 반영할 경우 지원자 성적이 대체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거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8개 대학에서 수시

교과전형을 확대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전형별로 보면, 주요 8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10% 이상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며 "대부분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데,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 ◆ '내신 영향력 적은' 논술 전형...건대·연대·항공대, 논술성적만 반영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지만 논술전형만 큼은 예외다.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에서 교과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내신 성적 영향력이 적은 편이고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건국대와 연세대, 한국항공대가 논

술전형에서 논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이어, 올해는 덕성여대와 성균관대도 논술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는 논술전형에서 논술점수 외에 학생부종합평가를 반영하지만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한다. 이마저도 반영비율이 기존 20%에서 올해는 10%로 감소하면서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서강대와 홍익대는 교과성적을 반영하지만 반영 비율이 10%에 그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작다.

단, 논술전형은 모든 전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는 특징이다. 지원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이 낮은 학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균관대 약학 논술전형의 경우 5명 모집에 3332명이 지원해 66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연철 소장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수시 합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정시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등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에 따라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미래 개척, 탁월한 교육·연구기관 돼야”

### 연세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 사회봉사상 등 각종 시상식 진행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가 창립 137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학내 백주년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장(GS칼텍스 명예회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유경선 연세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승환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 연세대는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137주년의 유구한 역사가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탁월한 교육·연구기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세사회봉사상·



지난 14일 연세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서승환 총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창업대상·의학대상·학술상·장기근속상·우수업적직원상 등 각종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세사회봉사상은 소아암NGO한빛(대상), 윤종환 멘토링&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단장(우수상(진리))이 수상했으며, 창업(스타트업)대상은 형우진 의과

대학 교수 겸 ㈜휴툰 대표·이혜영 보건과학대학 교수 겸 ㈜이노제닉스 대표(교원부문), 권인택 ㈜오른손 대표(동문부문), 정재원 ㈜유니브 대표·박진아 ㈜인스팅터스 대표(학생부문)에게 돌아갔다.

/이현진 기자

## “2025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노력을”

### 건국대 '개교 76주년 기념식'

건국대학교가 지난 13일 교내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교수, 학생,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6주년 기념식'을 열고 오는 2031년, 창학 100년을 향한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전영재 총장은 대학평가 순위 상승, 각종 재정지원 사업 선정 등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인 '파이오니어 건국 2025(PIONEER KONKUKU 2025)'의 발전목표를 향한 노력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도

전과 혁신의 물살을 타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2031년은 창학 100주년"이라며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설립자의 철학을 떠올리며 건국의 가치를 재정의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개교기념식을 맞아 송영화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에게 학술상이, 김성환 응용통계학과 교수 등에게 연구공로상이 수여됐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유학생에 한국어 글쓰기 교육

### 자주 틀리는 표현 등 교육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줌(ZOOM) 집중과정 한국어 글쓰기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글쓰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정확한 한국어 문장 쓰기 ▲자주 틀리는 표현 ▲재학 생활에 필요한 보고서 ▲발표 자료 작성

방법이다.

대상은 세종대 유학생 및 교직원 중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 목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5월 16일까지이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시 보증금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을 돌려준다. /이현진 기자

## 국민대, 클래식 연주회 '호프 어게인'

### 코로나 완전한 종식 기원 기획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가 거리두기 해제 시행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호프 어게인(Hope Again)' 행사를 통해 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희망을 나눴다. 15일 국민대에 따르면, 학생지원팀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클래식 연주회 '호프 어게인'을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원하며 일상 회복 가능성을 공

유하고자 기획됐다. 음악학부 학생들은 국민대 민주광장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일상에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특히, 스승의 날을 앞둔 3일차에는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성악전공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제창했다. 공연에 참여한 음악학부 학생들은 "오랜만에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연주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